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5 pp. 180-187, 2022

https://doi.org/10.5762/KAIS.2022.23.5.18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이다정, 정성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Xenophobia among College Students

Da Jung Lee, Sung-Jin Chu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요 약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혐오에 관해 연구하고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자는 2020년 1월 4~19일에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246명이었다.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version 3.5(model 6)를 이용하여 분석했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는 반면,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유의한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가 공격성을 통해 외국인 혐오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일부 밝혔으며,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공격성 감소를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Abstract In order to achieve a healthy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ecent increase in xenophobia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xenophobia amo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246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from January 4 to 19, 2020. For the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SPSS PROCESS version 3.5 (model 6) was used for analysi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was analyzed by the bootstrapping method. Study results found that self-acceptance had no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xenophobia, whereas aggression had a significant perfec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xenophobia. Through this study, some effects of stress on increasing xenophobia through aggression were revealed, and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 for stress management and aggression reduction among college students was discussed.

Keywords : Self-acceptance, Aggression, Stress, Xenophobia, College Student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Da Jung Lee) from Sahmyoo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Sung-Jin Chung(Sahmyook Univ.)
email: sjchung@syu.ac.kr
Received February 17, 2022 Revised March 25, 2022
Accepted May 6, 2022 Published May 31, 2022

1. 서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이주외국인의 수가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9.2%에 해당하는 403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1]. 그런데 선행연구를 보면, 한국인들은 이주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혐오 현상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외국인 혹은 반다문화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3]. 외국인 혐오가 심화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주나 미국과 같은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4], 외국인 혐오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연구하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는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며, 증가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이주외국인을 포용하는 국민의 의식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미래의 다문화사회를 책임지고 발전시켜야 할 청소년과 대학생이 이주외국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2018년에 성인 4,000명과 청소년 4,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0대의 다문화 수용성은 높아진 반면, 20~30대의 다문화 수용성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5]. 특히 20대는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 중 고정관념과 차별 요인에서 5.27점이나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대학생의 경우 52%만이 다문화 교육을 접한 반면, 약 13%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 없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한국 대학생들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은 이주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되는 현상이다.

대학생들이 외국인에게 거리감이나 혐오를 느끼는 이유로는 사회불안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 등이 꼽혔다[7]. 최근에는 청년 취업률의 저하로 인해 대학생들의 불안이나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도 외국인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대학생은 진로, 미래, 대인관계, 가정문제, 경제문제 순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9],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경제 저성장 시대에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의 진로, 미래, 경제문제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화시켜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스트레스는 우울감 같은 부정 정서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을 표출할 위험도 높일 수 있다[10,11]. 대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12], 공격성과 다문화 수용성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13], 대학생이 스트레스로 인해 공격성이 촉발되고 외국인 혐오가 증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격성과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자아탄력성[14]과 자존감[15]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기수용이라는 개념이 스트레스 완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명받고 있는데, 자기수용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16],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해도 부정적 정서에 휩싸이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17]. 따라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공격성 표출이나 혐오 표현 등을 덜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혐오와 대학생의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이를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가 이를 완화하는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격성과 자기수용이 외국인 혐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병렬 매개효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공격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외국인 혐오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외국인 혐오를 예방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한다.
2)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기수용, 공격성, 외국인 혐오 간에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매개하는지 파악한다.
4)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의 관계를 공격성이 매개하는지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모형을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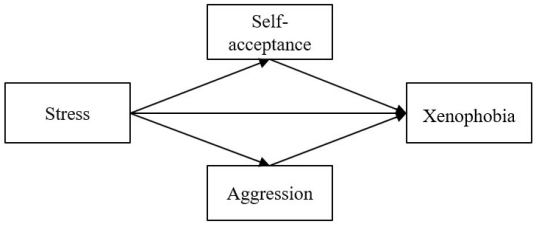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수거된 설문지 269부 중에서 결측값이 있는 설문지를 제거하고 24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2.3 연구 도구

2.3.1 스트레스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전겸구, 김교헌, 이준석[18]이 개발하고 김동임[19]이 수정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했다.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족관계(6문항), 가치관문제(5문항), 친구관계(5문항), 이성관계(6문항), 경제문제(4문항)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뤄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석한다. 김동임[19]의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3.2 자기수용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과 Haaga[20]가 개발하고 김사라형선[21]이 번안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를 사용했다.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것이다. 김사라형선[21]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고, 김광웅[1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2.3.3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erry[22]가 개발하고 서수균과 권석만[23]이 번안한 공격성 척도를 사용했다.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적 공격성(9문항), 언어적 공격성(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이다. 서수균과 권석만[23]의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2.3.4 외국인 혐오

외국인 혐오를 측정하기 위해 임도경과 김창숙[24]이 개발한 외국인 혐오 척도를 사용했다.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은 인종차별(14문항), 외국인에 대한 공포와 혐오(1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외국인 혐오 수준이 높은 것이다. 임도경과 김창숙[24]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제시하지 않았고, 김은희와 최진오[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했다(IRB No. 2-1040781-A-N-012019 101HR).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Google설문지 양식을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2020년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연구에 관한 소개와 설문조사 URL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SNS에 게시하여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 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제시했으며, 응답할 모든 내용은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명시했다. 개인정보는 조사문항에서 제외하여 익명성을 보장했고, 작성된 설문지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중도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 후, 온라인 동의서에 동의 표시를 하고 응답하도록 안내했다.

온라인 설문은 개인차가 있지만 20분 이내에 응답이 가능했고, 참여자 가운데 답례품을 받기 원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사람들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한 후 휴대전화 번호 정보는 삭제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연구 도구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했으며,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으로 검정했다.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version 3.5(model 6)를 이용하여 분석했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했다. 연구의 모든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05 수준에서 분석했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85명(34.6%), 여성 161명(65.4%)이었다. 전공은 인문계 123명(50.0%), 이공계 92명(37.4%), 예체능계 31명(12.6%)이었고, 학년은 1학년 23명(9.3%), 2학년 57명(23.2%), 3학년 73명(29.7%), 4학년 93명(37.8%)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6)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85	34.6
	Female	161	65.4
Major	Humanities	123	50.0
	Sciences	92	37.4
	Arts & Sports	31	12.6
Grade	1	23	9.3
	2	57	23.2
	3	73	29.7
	4	93	37.8

3.2 주요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자기수용, 공격성 및 외국인 혐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값은 Table 2와 같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모두 2 이하로 나타나 주요 연구 변인의 정규성을 가정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246)

Variables	M(SD)	Sk	K
Stress	65.04(18.31)	-.11	-.71
Self-acceptance	55.75(7.58)	.69	1.48
Aggression	63.67(16.66)	.14	-.24
Xenophobia	69.82(12.24)	.42	.82

Sk= Skewness, K=Kurtosis.

3.3 스트레스, 자기수용, 공격성 및 외국인 혐오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자기수용, 공격성 및 외국인 혐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3), 스트레스와 자기수용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24, p<.001), 공격성(r=.67, p<.001) 및 외국인 혐오(r=.14, p<.05)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수용은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19, p<.01), 외국인 혐오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공격성은 외국인 혐오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0, p<.001).

Table 3.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N=246)

Variables	Stress	Self-acceptance	Aggression
Stress	-		
Self-acceptance	-.24***	-	
Aggression	.67***	-.19**	-
Xenophobia	.14*	-.04	.30***

*p<.05, **p<.01, ***p<.001.

3.4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Table 4에 제시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1.84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은 1.86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자기수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β=-.24, p<.001), 공격성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67, p<.001). 스트레스와 자기수용은 외국인 혐오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공격성은 외국인 혐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β=.38, p<.001). 스트레스는 자기수용을 5.5% 설명했고(R^2=.055, F=14.27, p<.001), 공격성을 44.5% 설명했으며(R^2=.445, F=195.79, p<.001), 스트레스와 자기수용 및 공격성은 외국인 혐오를 10.0% 설명했다(R^2=.100, F=8.86, p<.001). 연구 모형을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함께 Fig. 2에 제시했다.

Table 4. Result of mediating effects (N=246)

IV	DV	B	SE	β	t	R^2
Stress	Self-acceptance	-.10	.03	-.24	-3.78***	.055
Stress	Aggression	.61	.04	.67	13.99***	.445
Stress	Xenophobia	-.07	.06	-.11	-1.32	.100
Self-acceptance		.02	.10	.01	.17	
Aggression		.28	.06	.38	4.61***	

IV=Independent Variable, DV=Dependent Variable.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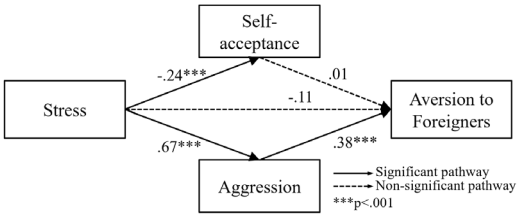

Fig. 2.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Table 5), 스트레스가 공격성을 통해 외국인혐오에 미치는 영향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67, 95% CI [.080, .251]).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었고, 공격성은 유의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Table 5. Result of bootstrapping analysis

Path	B	SE	95% CI
Stress → Self-acceptance → Xenophobia	-.002	.013	-.030~.024
Stress → Aggression → Xenophobia	.167	.043	.080~.251

CI=Confidence Interval

4. 논의 및 결론

최근 우리 사회는 이주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이면에서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고 있고, 외국인이 사회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혐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학생은 다문화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이주외국인 수용성은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혐오 문제를 연구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공격성을 통해 외국인 혐오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공격 성향이 높아지고[12] 공격성은 주로 상대적 약자에게 표출되어 따돌림이나 갑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문화사회 맥락에서는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내국인의 노동시장 점유율 하락과 실업률 상승의 요인으로 보고 이주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믿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불행이론[25]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 저성장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심리적 및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공격성이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이주외국인들이 취업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면 대학생들은 박탈감과 함께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에 대해 혐오를 느끼고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주외국인이 증가할수록 사회의 주도권에 대한 위협을 느껴 외국인 혐오 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다[25]. 더욱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이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 교육의 부재에 더하여 이주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불완전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상호이해의 폭이 줄어 적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26].

따라서 정신건강 향상뿐 아니라 공격성과 외국인 혐오를 낮추기 위해서,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대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확대하여 이주외국인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생할 수 있는 길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이나 영화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보도나 묘사가 다문화 수용성을 줄이고 외국인에 대한 공격성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자기수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용이 외국인 혐오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줄이지는 못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자기방어 능력이 감소하고 자아기능과 적응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경험하는 갈등을 더욱 강하게 지각해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된다[27,28].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은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공격성을 유보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이 외국인 혐오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이 높고[21] 공격성과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한다는[20]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수용 능력이 높으면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도 높기 때문에 상호이해가 바탕이 되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응 능력도 높게 나타난다[20]. 자기수용이 낮은 사람은 열등감이 높지만[29],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적게 하고, 자기수용과 공격성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기수용 증진법을 다문화교육과 외국인 혐오 예방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인의 귀화에 대한 시선이 개방적이지 않고[30], 이미 귀화했거나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낀다고 한다[7]. 특히 이주외국인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며, 범죄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위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꼽힌다[31,32].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나 사회가 심리적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 때 상대적 약자인 이주외국인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갖고 혐오하게 되는 현상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힌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기수용, 공격성 및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는 외국인 혐오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교육과 외국인 혐오 예방교육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 방법으로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한다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스, 자기수용, 공격성, 외국인 혐오에 대한 척도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이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값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설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면접이나 관찰자 평정 같은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완전매개한다는 것을 밝혔지만,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외국인 혐오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다른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urrent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in 2018.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73857

[2] S. W. Kim, "Police respons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xenophobia spread",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4, pp.408-417,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4.408

[3] Y. K. Lee,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Xenophobia in Korea and its Inducing Factor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010. http://www.riss.kr/link?id=T11949891&outLink=K

[4] K. C. Choi,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Xenophobia of Korean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6. http://www.riss.kr/link?id=T14170071&outLink=K

[5] Y. S. Kim et al., 2018 National Multicultural Receptivity Survey, Survey Repor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orea.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d599f1caac894f64bd7629e461f90550.pdf&rs=/rsfiles/202204/

[6] T. Y. Yun, E. H. Lee, "College Students'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0, No.1, pp.273-284, 2011. DOI: https://doi.org/10.5934/KJHE.2011.20.1.273

[7] M. J. Kim, *The Impacts of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Social Distance to Multicultural Groups: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2017.
http://www.riss.kr/link?id=T14573728&outLink=K

[8] E. H. Kim, J. O. Choi, "The impacts of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xenophobia: Th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6, No.1, pp.35-44, 201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20300

[9] Y. S. Kim, S. H. Yu,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mental health and life stress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and dental hygiene", *Journal of Technologic Dentistry*, Vol.35, No.4, pp.405-414, 2013.
DOI: https://doi.org/10.14347/kadt.2013.35.4.405

[10] S. Y. Go, *The Characteristics of Defense Mechanism in Hate Speech User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8.
http://www.riss.kr/link?id=T14874814&outLink=K

[11] M. A. Lim,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the Aggressivenes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2007.
http://www.riss.kr/link?id=T11368447&outLink=K

[12] Y. S.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tress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on*,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0.
http://www.riss.kr/link?id=T7907046&outLink=K

[13] B. R. Suh,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of adolescent", *The Journal of Civic Youth Studies*, Vol.5, No.2, pp.43-65, 2014.
http://www.riss.kr/link?id=A103220555

[14] H. J. Kim, M. S. Yang,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 pp.23-34,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3

[15] T. H. Kim,, E. J. Han, "Relationship of self-esteem, stress and social support experience to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living-alone elderly peop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9, No.3, pp.81-106, 200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61565

[16] K. W. Kim,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elf-acceptance and stress cop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9, No.4, pp.983-999, 200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00081

[17] A. Ellis, R. A. Harper, A guide to rational living (3rd ed.), p.283, Wilshire, 1997.

[18] K. K. Chon, K. H. Kim, J. 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No.2, pp.316-335, 200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8472

[19] D. I. Kim, I. J. Cho,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Mindfulness, and Social Support,"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15, No.4, pp.241-251, 201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88165

[20] J. M. Chamberlain, D. A. F. Haaga,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Vol.19, No.3, pp.177-189, 2001.
DOI: https://doi.org/10.1023/A:1011141500670

[21] S. H. S. Kim, "Designing and application of the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Development Program",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23, No.5, pp.161-170, 200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11079

[22] A. Buss, M. Perry,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3, No.3, pp.452-459, 1992.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63.3.452

[23] S. G. Seo, S. M. Kwon,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1, No.2, pp.487-501, 200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85409

[24] D. K. Lim, C. S. Kim, "A study on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antecedent factors: Focusing on social distance, image of foreign residents, and qualifications for being a Korea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Vol.19, No.1, pp.5-34, 201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30836

[25] S. T. Ko, Y. S. Kim, "Trends and causes of xeno-phobia in Russia",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19, No.1, pp.158-180, 2012.
DOI: https://doi.org/10.18107/japs.2012.19.1.006

[26] K. M., Huh, "Xenophobia symptoms and measures of Korean society", *The Police Science Journal,* Vol.9,

No.1, pp.233-259, 2014.
DOI: https://doi.org/10.16961/polips.2014.9.1.233

[27] K. H. Oh,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Physical/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2009.
http://www.riss.kr/link?id=T11682128&outLink=K

[28] M. J. Lee, Y. C. Cho, "Self-perceived psychosocial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2828-2838,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6.2828

[29] M. H. Byun, *The Influence of Zen-dance Meditation Program on Adolescent Anxiety, Impulsivity, and Self-acceptance*,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2004.
http://www.riss.kr/link?id=T9560962

[30] H. Choe,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 citizenship in South Korea", *Civil Society and NGO*, Vol.5, No.2, pp.147-174, 200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46898

[31] S. W. Kim, "Police respons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xenophobia spread",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4, pp. 408-417,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4.408

[32] M. S. Choi, Y. H. Joh, "An analysis on influence factors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teachers and adolescent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7, No.4, pp.1-31, 2014.
DOI: https://doi.org/10.22955/ace.17.4.201411.1

이 다 정(Da Jung Lee) [정회원]

- 2020년 6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심리학석사)
- 2021년 3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심리학과 조교

〈관심분야〉
다문화상담, 외국인 혐오

정 성 진(Sung-Jin Chung) [정회원]

- 2004년 5월 : Department of Educational & Counseling Psychology, Andrews University (심리학석사)
- 201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용서, 중독, 다문화상담, 상담윤리